현불논단

반드시 되돌아온다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신이라는 초월적 존재 없는 불교
모든 현상과 존재는 인과의 산물
인과 · 업, 부정적으로 봐선 안돼
참회하고 선행하면 좋은 과 받아

불교에서 강조하는 '회향'의 가치
서로 선한 업 나누면 모두가 보살
악업으로 인한 두려움 갖기보다는
불교적 삶 실천해 행복 찾아가자

불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조물주, 즉 '신'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만물을 창조하는 존재로 인간이 다가설 수 없는 초월적 존재를 말한다. 신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과 결과가 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신의 종교에서는 태초의 탄생인 창세기를 두어 모든 시작을 신의 초월적 힘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불교에는 태초의 시작이라는 것이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 어디에서도 창세기를 찾을 수 없고, 그 시작에 대해서는 '무시이래(無始以來)'라는 표현으로만 등장한다. 물론 후대에 생겨난 밀교계통의 경전에서는 다소 다르지만, 이러한 점이 불교가 말하는 세계의 시작이다. 무시이래가 의미하는 태초의 시작이란 어떤 것도 없다. 그저 앞의 '인(因)'이 다음 찰나에 오는 '과(果)'를 이끌어 온다는 것으로, 모든 현상과 존재는 인과의 연속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작용을 거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모든 현상과 존재의 시작이며 삶이며 그 모습이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작용을 불교에서는 인과(因果), 연기(緣起), 인연(因緣)이라 표현하고,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깨치신 법도 바로 이 인과의 깨달음이었다. 우리는 '인과'라고 하면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관념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그러나 인과는 자연의 모습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을 가졌기에 그러한 결과가 생겨난 것이고, 지금 겪는 이러한 일은 앞선 그러한 일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에 〈잡아함경〉에서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인과에 대해 '업(業, Karma)'과 관련된 설명이 많다보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과에 있어 업보다 중요한 설명이 없기에 그러한 관념이 생긴 것이다. 불교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업은 과보를 불러오는데 자신이 쌓은 업은 언젠가 반드시 그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그렇기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고, 현재 자신이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즐거운 과보가 되어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를 '선인락과(善因樂果) 악인고과(惡因苦果)'라고 경전에서 말한다.

그러나 인과와 업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 바르게 참회를 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보다 나아지기 위한 노력과 선한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즐겁고 좋은 일이 약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충분한 행복과 안락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눠주고 공유한다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다른 이들로부터 선한 업을 나눠받고 보다 많은 즐거운 일이 더불어 생겨나게 된다. 이를 불교에서는 '회전취향(廻轉趣向)' 줄여서 '회향'이라고 한다. 회향은 특히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수행으로 여겨지는데 보살이라는 존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회향으로 대변된다. 보살의 회향은 어떠한 과보나 공덕을 바라는 것이 없기에 그를 통해 한결같이 중생들을 자비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되돌려 베푼다.

인과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그것을 악업으로 삼아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과 다른 이들과의 화합으로 삼아 회향한다면 우리의 오늘과 내일에 반드시 행복한 일이 찾아오게 된다. 이것이 인과를 바르게 이해하고 불교적 삶을 실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노력한다. 자신의 노력이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 올 것을 확신하고, 그를 통해 홀로 행복한 것이 아닌 소중한 인연들과 더불어 행복을 느끼는 불교적 삶을 오늘 지금 실천해야겠다.

社說

조계종 출가장려위 출범에 부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8일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을 비롯한 10명의 스님들에게 '출가장려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종단적인 출가 장려 기구인 '출가장려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출가 관련 종단적 기구 설치는 오래전부터 주문돼 왔던 과제다. 현재 한국불교는 '출가 절벽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불교 대표종단 조계종의 출가자 수는 2000년 528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지난해는 61명만이 출가했다.

조계종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대에 들어 다양한 출가 홍보 사업 등을 진행했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출가 장려 사업에 대한 책임이 승가교육 행정 기구인 교육원에 집중돼 있었던 점도 큰 문제 중 하나였다. 출가 장려 대상은 재가 청년 불자이기 때문에 포교 사업과의 연계가 필수였지만, 이 같은 연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출가자 확대를 위한 종단적 '출가 T/F' 구성이 지속적으로 제안돼 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출가장려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제대로 된 출가 진흥 불사가 이뤄져야 한다. 불자 대중에게 불법(佛法)을 전할 승보(僧寶)의 계승 · 발전은 이제 시대적 과제다. 미래 인재인 청년들을 불교로 이끌고 승가 인재로 양성할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너져 버린 어린이 · 청소년, 청년 등 계층포교의 부활이 급선무다. 미래 불자 재원이 없는데, 출가 인재가 있을린 만무이기 때문이다.

출가장려위원장 혜일 스님은 "5년 내 연간 출가자 200명 회복"을 약속했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이 약속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강진 피해 모로코에 자비의 손길을

9월 8일 오후 11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역대급 강진이 발생했다. 진도 6.8에 달하는 지진으로 모로코 내무부는 2901명이 숨지고 5530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9월 13일 기준) 하지만,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구조 ·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희생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증유의 강진 피해에 한국불교계에서 애도와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11일 '모로코 강진 피해 애도 및 지원 성명'을 내고 "강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로코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같은 날 120년 만에 대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모로코 정부와 국민들에게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재단 후원자, 자원봉사자, 산하시설 종사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로코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모금 성금을 모연키로 했다. 복지재단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아름다운동행, 더프라미스와 함께 긴급구호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 후 긴급구호선발대를 신속히 파견할 예정이다.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모로코 국민들에게 긴급 식량과 의료물품 등 생존 필수품을 빠르게 지원, 회복을 위한 종단적 지원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불교에는 '세계일화(世界一花)'라는 말이 전해진다. '세계는 한 송이의 꽃'이라는 이 말은 '너와 내가 하나요, 만물중생이 한 몸'이라는 의미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모로코는 6.25 한국전쟁에 프랑스 UN군 소속으로 참여했다.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을 있게 한 친우(親友)이다. 그들의 어려움은 곧 우리의 어려움일 것이다. 강진으로 상처 입은 모로코에 자비의 손길이 절실하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⑱ 가을 단상

수확과 조락 사이에서

가을이 되면 즐겨 듣는 아트록 노래 두 곡이 있다. 한 곡은 스트롭스(Strawbs)의 '가을(Autumn)'이고, 다른 한 곡은 아프로디테스 차일드(Aphrodite's Child)의 '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Spring, Summer, Winter And Fall)'이다. 두 곡을 듣다가 필자는 다른 계절과 달리 가을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두 개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됐다.

'Autumn'은 '말라가는' 내지는 '건조해지는'이라는 의미의 고대 프랑스어인 'Autumpne'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16세기 이전에는 가을을 뜻하는 일반적인 영어는 추수의 뜻을 지닌 'Havest'였다고 한다.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Havest의 뜻은 '가을'의 의미는 사라지고 '수확'의 의미로만 쓰이게 됐다는 것이다. 'Fall'의 다른 의미는 '떨어진다'이니, 낙엽에서 연유한 단어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말 가을은 어원이 무엇일까? '끊을'의 의미인 갓을이 가을로 바뀌었다고 한다. 아마도 벼를 벤다(끊는다)는 의미에서 연유했을 것이다.

가을은 수확의 절기이자 조락의 절기이다. 이 무렵이면 들녘이 누릇누릇해지다가 황금빛으로 출렁인다. 그 황금빛은 한 해 동안 농부가 땀 흘려서 빚은 것이다. 하지만 그 황금빛도 잠시 어느새 들녘에는 휑한 바람만이 분다. 가을산도 마찬가지이다. 과수나무에서는 꽃 핀 자리에 과일들이 매달린다. 나무마다 고운 단풍 옷으로 갈아입는다. 하지만 그 고운 단풍도 잠시 어느새 산에는 나목(裸木)들만이 즐비하게 된다.

〈벽암록〉 제27칙은 운문화상의 체로금풍(體露金風)이다.

어떤 스님이 운문 화상에게 질문했다. "나무가 시들어 메마르고 잎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운문 화상이 대답했다. "가을바람에 나무의 본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대반열반경〉 제35권에는 부루나 존자가 비유로 설하는 내용이 있다.

"세존이시여! 마치 큰 마을 앞에 사라나무 숲이 있고, 그 숲 가운데 한 그루의 나무가 숲보다 먼저 생겨서 백년이 넘었습니다. 그 숲의 주인은 물을 주면서 철에 따라 가꾸었는데, 그 나무가 오래되어 껍질과 나뭇가지와 잎은 모두 다 탈락하고, 굳은 고갱이만 남아있습니다. 여래도 그와 같아서 남은 것은 모두 제거해 없어지고 오직 진실한 법만 남아 있습니다."

가을바람에 드러난 나무의 본체란 다름 아닌 번뇌가 사라진 본래면목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가을걷이를 끝낸 들녘의 휑한 자리를 보고서 우리는 "근본으로 되돌아가면 종지를 체득하고, 사물에 비친 대상을 따르면 근본을 잃어버린다"는 〈신심명(信心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